

Seminar Feedback Report (Week07)

2021312738 소프트웨어학과 김서환

7주차 세미나의 내용은 미래 AI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주로 의료 AI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네트워킹, 스마트 홈, 농업,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융합·확장되고 있는지를 현승주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래 탐구에서는 현재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주셨다. 이어 미개척 분야로서 의료 AI를 다루며, 눈 이미지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 사례를 소개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픽셀에서 연결성으로에서는 의료 AI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네트워킹, 통신 분야 등으로 확장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셨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한 스마트 보조기구나 자동화 도구를 넘어, 인간과 기술 간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셨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AI를 통해 더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뇌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피부 전기 신호를 읽어 AI와 조용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lter Ego', 낮 동안 수면을 유도하는 뇌파를 생성하도록 훈련하는 'Ergonite' 등의 신기술을 소개해주셨다. AI 로봇과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Ball.ly와 같은 홈 어시스턴트, 가족형 로봇 Jibo를 통해 AI가 인간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뿐만 아니라 농업 혁신, 증강 현실, 의료 AI 기술 부분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 AI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눈 이미지만으로 건강을 진단하는 기술이나, AI 기반 뇌 인터페이스 개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흐름을 접하면서 AI 연구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